

FIRST STORY OF
ANGKAL TEAM
IN CAMBODIA

2019.09

CONTENTS

- 01** INTRODUCING MEMBERS
- 02** OPA – OLD PEOPLE ASSOCIATION
- 03** YLC- YMCA LEARNING CENTER
- 04** YI – YOUTH INSTITUTION
- 05** ABOUT CAMBODIA
- 06** MEMORY IN CAMBODIA
- 07** FEELING

PART 1

Introducing members



19TH RAONATTI CAMBODIA ANGKAL TEAM MEMBERS



오정석 / SEYHA



박정근 / DARA

19TH RAONATTI CAMBODIA ANGKAL TEAM MEMBERS



박정은 / PHKAY



박재희 / BOPHA



정유선 / CHARIYA

PART 2

OPA-Old People Association



OPA

Old People Association

OPA란 무엇인가?

캄보디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노년층들의 협력 공동체입니다.

앵콜팀이 OPA에서 알게 된 내용

- 1) OPA 사람들은 돈, 생활환경, 건강,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 2) OPA 사람들은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 3) OPA 사람들은 청년층은 모두 일을 하러 가서 일손이 부족하다.
- 4) OPA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한 채 정부의 땅을 빌려서 판자촌에서 생활한다.

앵콜팀이 OPA에서 한 일

- OPA 사람들의 외로움, 고충해결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10월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OPA관계자에 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PART 3

YLC-YMCA Learning Center



YLC YMCA LEARN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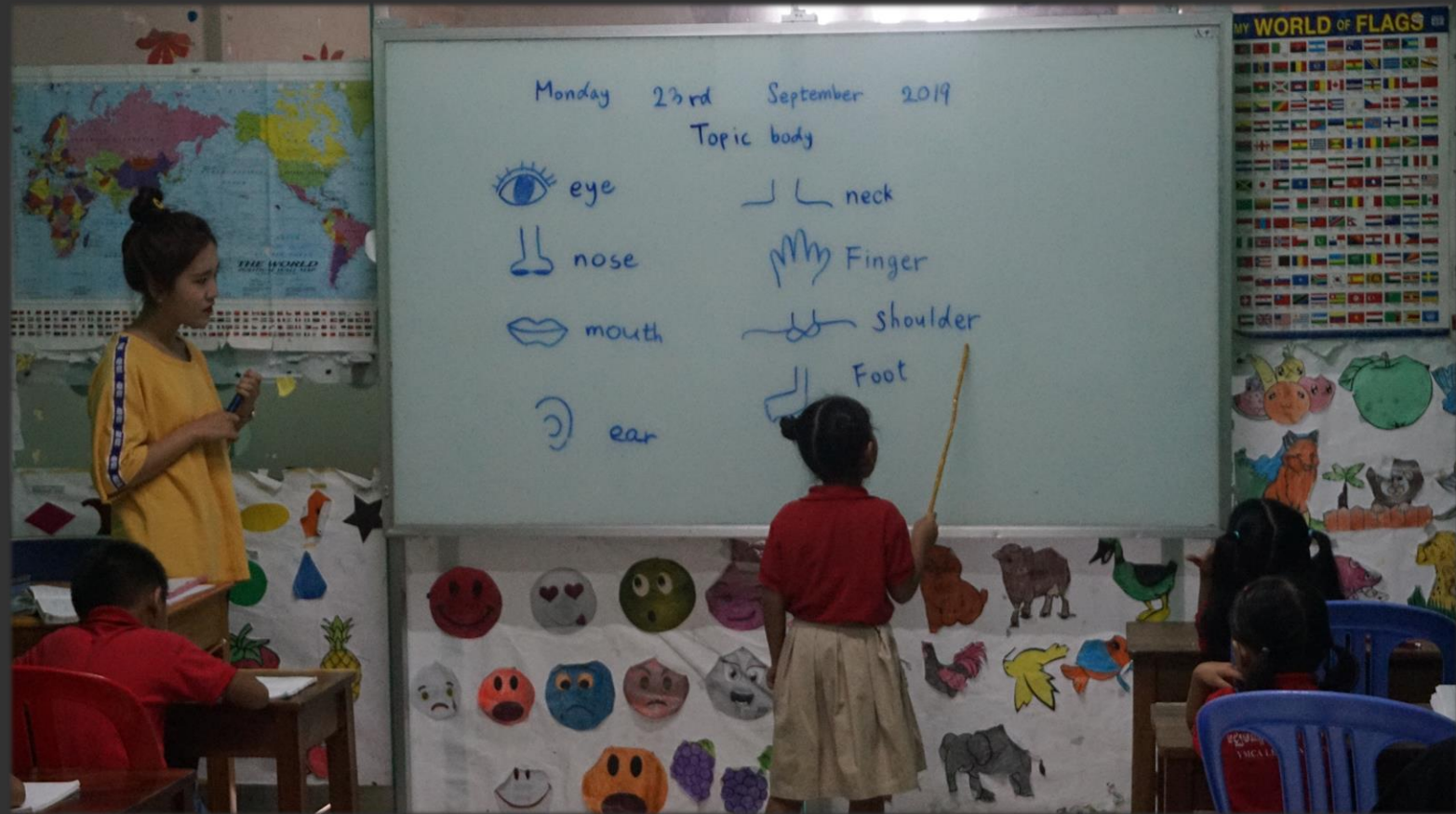
Assist the class and teach English

YLC란 무엇인가?

YMCA LEARNING CENTER는 캄보디아 YMCA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영유아부터 초등까지의 학생들이 영어, 미술, 크메르어 등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은 오전 8시~ 11시, 오후 2시~5시까지 각각 3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앵콜 팀은 9월 한달 간 YLC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참관과 동시에 현지 선생님의 수업진행을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수업을 할지,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등 수업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팀원들은 10월 전에 직접 수업을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10월부터는 앵콜팀 팀원들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여 진행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YLC YMCA LEARNING CENTER

Upgrade ymca environment

캄보디아 YMCA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앵콜팀과 현지 스태프들끼리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했습니다.

8월 28일~ 9월 30일

- 1) 캄보디아 YMCA 관계자들과 YLC 환경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획하였습니다.
- 2) 노쇠한 계단 기둥들을 새롭게 페인트칠을 하여 환경 개선을 하자는 의견을 수립되었습니다.
- 3) 실행날짜, 예산, how to make, 도안 등 환경개선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했습니다.
- 4) 학생들이 없는 휴일에 맞춰서 앵콜팀은 대대적으로 YLC 환경개선에 앞장섰습니다.

PART 4

YI-Youth Institution



YI YOUTH INSTITUTE

Assist the class and progress activity

YI란 어떤 곳인가?

YI는 YOUTH INSTITUTE 의 약자로 판자촌에 사는 아이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앵콜팀이 1달 동안 진행한 일

- 1) YI Director에게 Y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 아이들의 생활환경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 2) 아이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점심시간마다 팀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 3) 아이들과 함께 활동적인 게임을 같이 하거나 YI의 기존 수업에 보조 역할을 하였습니다.
- 4) YI Director와의 긴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와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ex. 포토샵, 영어, 수학, 음악, 미술 등)





YI YOUTH INSTITUTION

Fellowship with Cambodia university volunteers

9월 24일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을 위해서 YI관계자들과 캄보디아 자원봉사자들과 팀워크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서로 준비한 한국, 캄보디아 게임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와 한국 음식들을 서로에게 요리해주었습니다.

팀워크를 위해 소통하고 친목을 다짐하여 YI의 발전을 이야기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PART 5

About Cambo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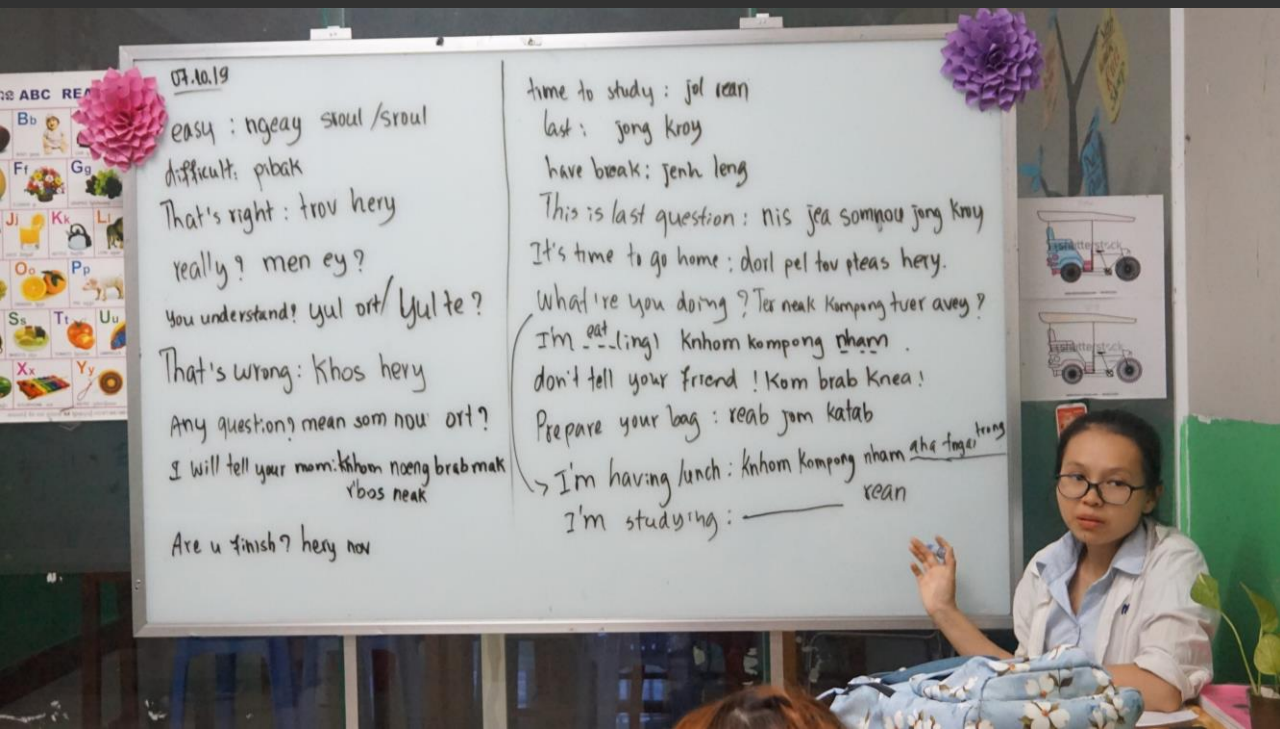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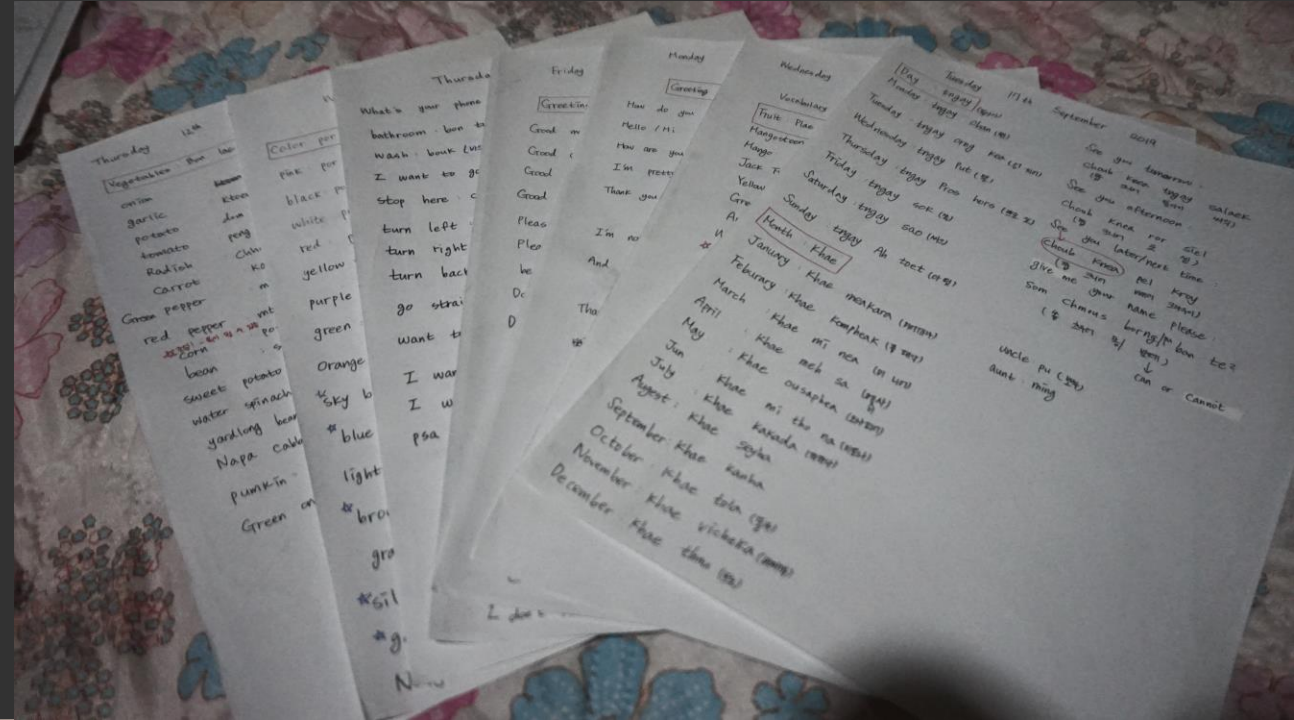
ABOUT CAMBODIA

Learning Khmer

앵콜팀은 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들을 위해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늘 하루 일정이 끝나고 저녁 5시30분~6시30분까지 1시간동안 Panha 선생님과 함께 크메르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크메르어로 읽기,쓰기,말하기 등을 통해서 크메르어의 실력을 한 단계씩 늘리고 있습니다.

늘 하루 일정이 끝나고 공부하느라 지친 몸이지만 현지인들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열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ABOUT CAMBODIA

Phnom Penh

8월 30일 프놈펜의 문화 즐기기
캄보디아 Y의 관계자인 LOT의 가이드 하에 휴
일날 프놈펜 문화탐방을 가졌습니다.

앵콜팀이 프놈펜에서 한 일

- 1) 투올 슬랭 박물관
- 2) 프놈펜 왕궁
- 3) 센트럴 마켓
- 4) River side
- 5) 나이트마켓
- 6) Street food 도전하기



LOT의 가이드를 통해 캄보디아의 역사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BOUT CAMBODIA

Kampong Thom

9월 26일 ~ 9월 28일

캄보디아의 명절을 이용하여 앵콜팀은
현지 간사인 HEM THEL의 고향인
Kampong Thom에 가서 Local Life를 즐
겼습니다.

앵콜팀의 Local Life 즐기기

- 1) 현지 사람들과 함께 교통수단 즐기기
- 2) 현지 음식만 먹기
- 3) 현지 Home stay 즐기기
- 4) 현지 명절을 기념하는 파티 참가하기
- 5)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 6) 한국어,영어를 자제하고 배운 크메르어를 이용하여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 7)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체험해보기



PART 6

Memory in Cambodia





Lot



Hem Thel
(Charlie bram)



Chea

MEMORY IN CAMBODIA

Offering Korean food for Cambodia ymca people

고마운 캄보디아 YMCA 관계자들을 위해 매주 1명씩 한국 요리를 대접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치찌개, 닭볶음탕,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음식을 요리해주는 것을 통해 캄보디아 YMCA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친밀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앵콜팀은 귀국할 때까지 매주 1명씩 점심식사를 대접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EMORY IN CAMBODIA

Visiting Aeon mall and central market

앵콜팀은 매주 토요일은 팀원들끼리 보내는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평일 동안 서로 가고 싶은 곳을 공유하며 팀원들끼리 프놈펜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Aeon mall 를 가서 가게 구경부터 영화관 구경까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프놈펜에서 가장 큰 Local Market인 Central market에 가서 현지인들과 흥정을 통해 물건을 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만, 현지인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르는 일을 찾아서 지치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EMORY IN CAMBODIA

Trying Cambodian fruit and food

캄보디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음식을 자주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에 앵콜팀은 늘 현지음식을 고집했습니다.
특히나 재희단원과 정석단원은 과일을 좋아하여 현지 과일을 모두 먹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빵 왔다!!!

논빵~♪ 논빵~♪

- 논빵 러버 박정근 & 간식 러버 오정석



MEMORY IN CAMBODIA

Cooking

저희가 한달 동안 만든 음식들입니다. 외식을 최대한 자제하며 앵콜팀이 식사당번을 정해서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PART 7

Feeling

FEELING

OH JUNG SEOK / SEYHA

프놈펜에서의 첫 달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우리가 활동할 곳은 어디인지 어디에 슈퍼마켓이나 한인 마트가 있는지 이리저리 알아본 것 같다.

우리가 활동하는 곳이 캄보디아의 수도이다 보니 너무 편안하다. 수도의 중심부가 아님에도 맘 편히 지내고 있어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좋다.

스마트폰은 안 가져오다 보니 팀원들과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지만, 스마트폰이 없음으로 생기는 불편함이 꽤나 존재해서 뭔가 좀 아쉬웠다.

YLC, YI, OPA 3곳의 활동지가 있고 파트별로 각각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앵콜팀도 현지 상황에 맞는 활동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싶다.

프춌번기간은 9월 캄보디아의 추석과 같은 날로 연휴를 가지게 되었다. 현지 간사님의 고향인 캄퐁통으로 간사님과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고 현지에서 홈스테이를 진행하며 2박 3일을 지내게 되었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활동지는 이런 곳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깨끗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지낼 수 있고 주변 환경들도 너무 좋은 곳이었기도 하고 캄퐁통에서 우리와 지냈던 아이들이 안가면 안되냐고 했을 때 진짜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나에게서는 좋고 편안한 곳이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팀원들과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고 아띠프로젝트, 각종 캠페인 들을 진행함에 있어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 싶다.



오정석 / SEYHA

-누텔라는 나의 것

"와 누텔라 미쳤어 0_0!!"

"나 사과주스 사줘!!"

FEELING

PARK JUNG GEUN / DARA

캄보디아에 오기 전 낯선 땅에 떨어진 이방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팔던 물건들이 캄보디아에는 당연히 없을 거라는 생각에 혹시 몰라서 가득 가져온 짐들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여기도 사람냄새가 가득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팔았다. 웬지 모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게 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처음에는 블로그, 미디어에서 본 캄보디아의 모습 때문에 경계심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을 지내다 보니 한국보다 더 정이 많은 도시였고, 모두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음을 마음 속 깊숙이 느낄 수 있었다.

도착한지 1주일 쯤에 방 키를 숙소에 두고 가서 모두가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 마을주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무사히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때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 마을에 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여기 마을에 속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다.

아직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르고, 자국민을 오토바이로 날치기 하는 것을 보는 안 좋은 면도 존재하지만 나는 캄보디아의 밝은 면을 더 많이 보았다.

우리에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 나라가 점점 더 좋아진다. 남은 4개월의 생활을 서서히 캄보디아에 스며들면서 살고 싶다.



박정근 / DARA

-빵과 물아일체

"빨래 안 할래???"

"으이구~ 고집은 으이구~"

FEELING

PARK JEONG EUN / PKAY

입국 날, 공항에서 간사님을 비롯한 다른 팀과 모두 헤어지고 우리 팀만 남았을 때 갑자기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왔다. 캄보디아는 커녕 동남아시아에 처음 가보는 나에게 캄보디아는 TV속에서만 보던 미지의 장소였다. 그런데 의지할 사람이 우리 팀 5명 뿐이라니.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잘 적응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 팀 5명 뿐만이 아니라 많은 캄보디아 YMCA 분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한 달 사이 정서적 유대감이 이만큼 이나 쌓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이곳이 편안해지고 있다. 첫 달을 보내면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답답하기도 했다. 지금도 소통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확실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오기 전 많이 걱정하던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었다. 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랐다. 그래도 한 달간 수업참관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아이들이 우리들을 정말 많이 좋아해준다는 것이었다. 특별히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를 아이들이 좋아해주는 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앞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팀원들과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은 / PKAY

-프놈펜 카페 정복자

"찐~짜 맛있어!!!"

"아니 왜 열쇠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FEELING

PARK JAE HEE / BOPHA

지난 한달동안 캄보디아에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내가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 속에 위생은 물론 끼니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에 5000원씩 주고 커피를 사 먹었던 내가,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는 여기에 왜 파견된 건지를 한동안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 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의료적인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받았던 지식을 '나눔'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YLC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까지 보다 다양한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집안 형편을 떠나서 아이들의 미소는 정말 예쁘다는 것을 종종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줄 수는 없더라도 나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배우고 또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다. 그것이 밤까지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힘들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인 것 같다.

비록 지금은 라온 아띠가 무엇인지, 내가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처럼 캄보디아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박재희 / BOPHA

-요거트 대마왕

성대모사 "no money~ old~ people"

"카페 안 갈래??"

FEELING

JEONG YOU SEON / CHARIYA

캄보디아에 온 지 1달이 지났다. 생각보다 한 달이 빠르고 바쁘게 지나갔고 이제서야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아마 YI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지 않나 싶다. 처음 이곳을 방문을 하였을 때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 교육 환경에 너무 놀랐고 충격이었다. 그 후, 나는 빈곤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아이들이 난폭적일 것 같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한 달 동안 YI 선생님을 보조하고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여기 있는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처럼 장난치는 것,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꼈고 이것이 빈곤과 관계있다고는 크게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 남은 4개월 동안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계속 해서 보고 싶고 에너지를 받고 싶고 나도 아이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나의 고민을 덧붙이자면 나 또한 교육을 직접 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YI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든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 된다.



정유선 / CHARIYA

-침대 밖은 위험해

"으짜라고 우짤!"

"왜 나한테만 그래?ㅠ_ㅠ"





THANK YOU

-STORY OF ANGKAL TEAM-